

오피니언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고인돌 세상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

고인돌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의해 망가지지 않고 영광스런 문화유산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우리에게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아직 생소했던 지난 19세기 말, 우리가 옛것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땅에 건너온 유럽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한반도의 몇몇 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인돌(支石墓)이었다. 크고 넓적한 바윗덩어리로 이뤄진 구조의 대부분이 지상에 그대로 드러난 독특한 모습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줬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가운데 흔히 '북방식'으로 일컬어지는 고인돌은 넓적한 판돌을 세워 네모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어 흡사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돌멘(dolmen)'과 비슷한 구조를 보여 그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들 유적이 모두 옛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공통된 사실이 그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일찍부터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거석문화의 대표적 유적

고인돌은 선돌(立石)과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북극해와 '오오츠크' 해 등 한대지방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륙의 해안지방을 따라 넓게 퍼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에서 매우 밀집된 분포를 보여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수 만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분포는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의 '랴오닝'성(省) 등 동북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모두 합쳐봐도 몇 백개에 불과해서 한반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널리 퍼져있는 고인돌들은 특히 반도의 서남단인 이곳 전남 지방에서 유난히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인접한 고흥 지역을 포함해서 약 2만여 기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동아시아는 물론 반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반도 내의 고인돌에 대한 정확한 수가 잡혀진 바는 아직 없지만 얼추잡아 전남 이외 지역에서의 고인돌을 모두 합쳐봐도 2만기가 채 못되는 것을 봐도 그 수적인 우월성을 어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의 밀집도와 구조의 다양성에 따라 일찍부터 세계 고고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며 지난 2000년에는 이곳 화순과 이웃 고흥의 고인돌들이 강화도의 것들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인위적 피해를 입어 온 유적이 바로 이들 고인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유적의 속성상 구조의 대부분이 항상 땅 위에 드러나 있어 도굴 등 인위적 피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들판의 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경작 등의 장애물로 취급되어 더욱 심한 피해를 입어 왔었다

특히나 근년에 이르러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

는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라 수많은 고인돌들이 훼손되고 있으나 이들을 온전히 보존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러는 현지보존이 어려워 고인돌 공원과 같은 곳으로 옮겨져 이전 복원이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미봉책들이 강구되기도 하지만 문화재란 그 원위치를 버리게 되면 이미 문화재로서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보존 대책 마련해야

이 지역에서는 고인돌의 소멸과 함께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이후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는 화려한 불교문화와 도자문화, 그리고 서화(書畵) 문화 등 이곳 남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꽃을 피워왔다. 그러나 고인돌만큼 한 시대를 총체적으로 대표할만한 문화적 요소가 그 뒤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인돌은 그 자체로서의 웅대한 위용(偉容) 뿐 아니라 무덤 안에서는 이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당시의 물질문화와 함께 정신 세계까지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 되고 있다. 그만큼 한 세상을 품어왔던 고인돌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의해 망가지지 않고 영광스런 문화유산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소모적 정쟁 부추기는 '코드 인사' 안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 이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열린우리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문화하면서 이삼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병헌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핵심"이라며 "인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인식과 정치권의 시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앞서 '문재인 카드'와 관련, "개인적으로 훌륭하나 국민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 여론을 들어 문 전 수석의 기용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문재인 법무장관 카드의 전횡적인 '코드인사'로 검토대상

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배기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과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여론을 떠난 인사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아무리 소신과 원칙을 강조해도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이 되풀이 되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과등을 수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하다. 개각 때마다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고 소모적 공방으로 이어져 국력을 낭비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병준 부총리 '파문'으로 온 나라가 한달여동안이나 시끄럽지 않았는가.

청와대는 정치권이 왜 '문재인 카드'에 반기를 들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코드'가 아닌 '국민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라는 주문이다. 집권 후반기 청와대와 정치권의 인사갈등은 권력 누수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당이 기초의회까지 통제하려는가

민주당이 다른 당 소속 구의원들과 연대해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을 제명키로 했다고 한다. 공정한 경선을 거쳐 당선된 의장을 중앙당이 나서 제명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징계사유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나 의원이 당론을 어긴 것은 당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마디로 같은 당 김도 의원을 의장으로 뽑기로 한 당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아무리 다수당이라지만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누구를 의장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할 행위가 옳바르다는 말인가. 의장을 '나눠먹기'식으로 선출해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살릴 수 없다.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원까지 중앙당에 예측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조직책으로 전락시키고 지방자치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

덕목은 의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지 야합이나 나눠먹기는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일색인 광주와 전남에서 원구성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법정싸움으로 번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는 구의원들이 공정한 경정을 통해 의장을 뽑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아무리 '덧발'이라 할지라도 기초의회 의장선거까지 관여하는 것은 권력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원까지 중앙당에 예측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조직책으로 전락시키고 지방자치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

無等鼓

'지훈은 초연한 자세로 등반에 열중이었다. 홀드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혼신을 불어 넣었다. 구슬 같은 땀이 흘렀다. 얼마나 몰이 자연스러운지 자신이 숨을 주고 있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했다. 무대 위에 선 발레리나, 선율이 울리고 나래와 같은 동작으로 무아에 빠져든 한 마리의 나비. 그는 꽃 위에 선 자신을 보았다. 그래, 하늘길을 타고 하늘로 오르자...'

어지고 있는 추세다. 설악산 공룡능선과 용암장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릿지다.

해발 809m의 나지막한 영암 월출산에도 릿지가 있다. 지난 1980년 릿지대의 대산악회가 개최한 사자봉 릿지다. 바람폭포~사자봉으로 이어지는 300여m 루트에서 바라보는 천황봉·장군봉·형제봉·매봉 등 주변 경관은 빼어나다.

사자봉 릿지



사자봉 릿지는 슬랩(slab·매끄러운 바위면), 크랙(crack·바위 틈새), 침니(chimney·큰 바위틈)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산악반 훈련지로 제격이다. 산행에 보통 5~6시간 걸리는데, 마지막 80m 하강 코스가 백미(白眉)로 꼽힌다.

옛그때 이곳 하강 지점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 자일이 10여m 부족, 4명이 한밤중 5시간 이상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다.

릿지 산행에 앞서, 여분의 자일과 확장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의료 칼럼

이석광



"어머! 가운데 너무 예뻐요." 지난날 1일 새로운 여성 전문 병원을 개원하며 나는 '특별한' 가운데 입게 됐다. 푸른색 '트weed'(tweed·모직을 격자로 짠 소재) 소재인 이 가운데는 서울의 유명 업체에 특별 주문을 해 디자인했다. 각각 다른 색의 8가지 넥타이와 꽃장식 '코르사주'(corsage·조화 장식)도 준비해 날씨와 상황에 맞게 코디한다. 여성 환자들의 호기심과 반응은 생각보다 컸다. 나는 이 가운데 명품 '사발'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것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 환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까다로운 정도로 섬세한 현대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환실 분위기'를 주제로 병원을 꾸민 것도 좋은 반

료된다. 인간의 손 크기를 고려해 만든 신용카드, 사회 봉사 활동에 부족 관심을 기울이는 대기업, 독특한 향기와 그윽한 커피향이 나는 병원 등이 그래서 등장했다.

우리 병원 환자 대기실은 벨벳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시며 잡지를 읽는 여성들의 작은 카페가 된다. 직장 여성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들려 치료와 마사지 등을 받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놓는 채 다시 직장으로 향한다.

한때 나는 "병원은, 그리고 나는 단지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는 기술장이고 기술자인가?"라고 생각했었다. 환자가 의사를 어려워하며, 공감할 것이 있어

내가 파스텔색 가운데 입게된 이유

응을 얻었다. 오리엔탈 분위기로 병원을 꾸민 것은 '여성 전문 한의원'의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병원이 권위적이고 딱딱하기보다, 따뜻하게 반겨주는 심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요즘 많은 병원에 '감성 마케팅'이 도입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병원은 '현색' 일색이었다. 의사와 환자는 '병'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고, 진찰 받고 진단하는 일방적 관계만 존재했다. 그러다 '웰빙'이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자, 병원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감성 마케팅'이다. 인간의 감성요소를 파악해 각자의 기호에 맞게 서비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이 감각이라면 감성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거야"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리와 사고를 뛰어넘어 거기에 매

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을 탈피하고 싶었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마음이 오고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병원은 병원이 '심터'이기를 바라는 내 작은 소망이 반영된 공간이다.

물론 병원의 필수 요소는 '신뢰'이다. 이는 감성마케팅을 적용하는 병원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의료의 기술이나 서비스는 제쳐 놓고 오직 감성 마케팅만 추구할 경우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료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싼 진료비로 병원 입장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번지르르한 겉포장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 감성을 자극하고 친근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감각을 부여하는 병원이 의료기관·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본다.

〈She's 여성의원·한의원 원장〉

기고

백강화



좋은 일에 따지를 거는 건 잘못이었으나, 더 끈고히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창 주요 대로변에 심고 있는 소나무 식재가 그런 경우이다. 아직까지 그늘을 드리우는 가로수로서 기능은 약간 의심스럽지만, 쪽쪽 뺨은 기쁨만큼은 '역시 나무는 소나무야'란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여름에는 멋진 풍치로, 겨울에는 상록수답게 하얀 눈을 배경으로 한 장관으로 다가올 소나무는 문화광주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몇 가지 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첫째는 소나무 가격 문제이다. 풍자하니 이 소나무들은 먼 강원도에서 몇 백만원씩 주고 사온다고 한다. 멋진 건

무 밑에 일부러 서 보아도 전혀 그들이 되지 않으니 그저 눈요기 역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푸른 광주를 지향하는 목적인데 대로변에 심고 있는 소나무 식재가 그런 경우이다. 아직까지 그늘을 드리우는 가로수로서 기능은 약간 의심스럽지만, 쪽쪽 뺨은 기쁨만큼은 '역시 나무는 소나무야'란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조상들께서 담산나무로 일 많고 오래 가는 느티나무를 심고, 좋은 소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 풍자를 지은 까닭은 그 나무들이 있어야 할 곳과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일 게다.

셋째 물론 전문가들이 걱정할 문제지만 - 이번 수해만 봐도 그 분들 무작정 민다간 큰 코 닳힐 때도 있다 - 소나무 재선충 같은 질병의 유입문제다. 임업 쪽에 계신 분들은 소나무같이 질병이 많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소나무

소나무 유감

종지만 나무 한 그루 가격에 운송비까지 합치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될는지? 내 돈 아니니 특별히 상관 할 바 아니지만 조금 애항심을 발휘한다면 그런 돈들이 좀더 보람된 일에 쓰였으면 한다. 솔직히 값나가는 가로수는 우리가 좀더 잘 살게 되었을 때 심어도 충분할 것 같다. 원지 도시의 소나무는 부자들의 정원수처럼 서민들이 보기에 약간 부담이 간다.

물론 소나무 가로수의 효용성이다. 아무리 보아도 저 놈의 카디라 소나무는 당장 불꽃이 있는 반천대만 풀면 넘어질 것 같다. 더구나 태풍이 잦은 우리 고장에서 산에서 주로 쓰러지는 것만 보아도 대개 소나무인데, 저렇게 경충한 몸으로 큰 바람을 어떻게 견디며 날지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리고 그 소나

는 초기 숲을 이루다가도 낙엽 활엽수에 최정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강원도 같은 타지산 소나무가 우리 고장으로 유입되다 보면 각종 질병들도 함께 따라오기 쉽다.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도 일본에서 합관에 붙어온 유충이 전파시켰다는데, 생 소나무가 오는 데 과연 안전할까? 전염병의 예방은 우선 차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질병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는 때는 더욱 예방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행여 불법적이 요소가 개입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동·식물에 있어서의 밀렵과 벌채는 역사적인 범죄인만큼, 우리 눈에 좋으라고 자연에 눈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주부〉

시골마을 화장실 보수해 더럽다는 인식 바뀌어야

얼마전 가족들과 고향인 담양 시골 마을에 갔다가 5일장이 열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다급히 화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화장실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담배꽂이를 비롯, 화장지·신문지 등 너무 불결해 문을 닫았다.

옆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었다.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는 상태였다.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이용자들이 불결함

을 느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방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무 화장실이 고장이면 즉시 고쳐야 한다. 최소한 '문고장, 노크할 것'이라고 적어 놓아야 한다.

지방 화장실은 여전히 더럽고 사용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는 도시인들이 많을수록 관광객들도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주유소 발화 물질 사용 제한 필요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는 차량이 여전히 많다.

주유소는 조그만 불씨로도 엄청난 화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주유 중 시동을 끄라는 요구를 하는 주유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괜한 말을 했다가 다름이 일 것 같아서다. 그나마 간혹 주유를 하는 동안 담배를 피

우는 운전자도 많다. 주유소 대부분이 도로와 인도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소방 당국은 왜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 주유소는 어떠한 발화 물질의 사용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성은·광주시 북구 운암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